

“종가집이 달라졌다”
10 통도사에 부는 변화 바람

마곡사 친환경 방생법회
12 토종 붕어 치어 35만 마 방류

“참선, 해 봐야 참맛 알지”
17 선지사·북천선원장 월성 스님

영화 속에 불교코드?
19 영상미디어 속 불교사상

“北동포 굶어죽는 비극 막아야”

JTS, 북한 식량난 실상 공개...시민단체들 긴급구호캠페인 동참

황해도 웅진과 용연에서 아사자(餓死者)가 하루 평균 7~10명씩 발생 하는 등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좋은벗들, 한국JTS, 불교인권위 등 NGO와 네티즌들이 북한 식량난의 실상을 알리며 긴급구호캠페인에 들어갔다.

북한사회가 또 다시 1997년과 같은 '굶주림'으로 동요되고 있다. 미안마 사이클론, 중국 지진 등과 같은 아시아 자연재해로 인한 극한 상황은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 동포인 북한의 식량난은 외면받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주민의 식량난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대북구호단체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이 5월 2일 출판문화회관에서 연 '2008 북한사회동향 보고회'였다. 좋은벗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 내 자체 정보망을 이용해 밝혀낸 실태를 공개했다. 특히 북한 사람들이 직접 '굶어죽고 있다'고 증언한 동영상 자료 공개는 충격을 던져줬다. 한 북한 관리는 "시멘트 바닷까지 뒤집어 풀뿌리를 캐서 먹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한 탈북주민은 "먹을 것이 없다보니 돼지들도 먹이 나가는 꼴을 사람이 먹어 병이 나는 경우도 많다"면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중국으로) 내보내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좋은벗들의 보고 이후 각 언론사에서도 자체 정보망을 활용,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주간조선>은 심층리포트를 통해 "북한 곡창지대



북한 주민들이 아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사진은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JTS가 5월 28일 퍼포먼스로 재연한 장면.

인 황해도·함경도 지방이 흉수 피해를 입어 곡물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쌀값이 수직상승,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SBS와 KBS 등 각 방송사들은 리포팅을 통해 "정부자료를 살펴보면 북한 하위계층 1000만명이 굶주림의 위협에 처해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들이 굶어죽는데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남북한 정부가 절실히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주부 부서인 통일부와 국정원은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한달에 50만톤 정도 유입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저러 버텨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사회)가 아직 견딜만한 상황"이라고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이어 북한 식량위기가 보도되자 NGO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먼저 JTS는 북한주민들을 긴급 구호하기 위해 5월 27일 부산항 제3부두에서 200톤의 밀가루를 싣고 출항했다. 이번엔 보낸 밀가루는 함경북도 의욕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농아학교, 중성학원, 라선어린이집과 회령시 양로원, 양강도 해산사 어린이집에 각각 전해질 예정이다.

JTS는 '긴급구호단'을 조직,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을 알리기 위해 5월 26일~31일 전국 10개 도시

에서 '동포의 밤상체험' 캠페인을 벌이며,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재연한 퍼포먼스를 시연,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토회 활동가들은 "옥수수 20kg들이 한포대면 북한 주민 4명이 한달을 먹을 수 있다"며 "북한 동포에게 옥수수 1만톤 보내기 운동"과 '1만원 기부하기 운동'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JTS의 북한동포 돕기 캠페인은 미주 지역과 필리핀, 태국 등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JTS의 모금운동 결과는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모금운동을 펼

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5월 30일 현재, 모금액이 1억을 넘어선 것. 게다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진행된 모금운동도 6시간만에 1000만원을 달성했다. JTS 모금운동에 동참한 네티즌은 "굶어죽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냐"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북한 어린이에게 우유보내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불교인권위는 올해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며 굶주리는 북한어린이들을 위해 정성을 모으고 있다. 인권위는 '북한에 구호제 보내기 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불교계 밖에서도 북한 구호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은 5월 29일 6·15 운동본부 남측위원회와 공동으로 올 가을 북한동포들에게 쌀을 보내기로 하고 '통일쌀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 통일쌀 재배지는 안동을 비롯해 영주·의성·봉화 등 경북 9개 지역으로, 이곳에서 생산될 예상 쌀 생산량은 모두 80kg들이 1천여 가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좋은벗들·JTS 이사장 법륜 스님은 "현재 남북의 정치적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은 안다. 북한 정부가 폐쇄적인 것 역시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며 "지금 중요한 것은 구해낼 수 있는 생명을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북한 식량난 문제에 국민적 동참이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김강진·박지원 기자

社 告

‘현대불교’ 새얼굴로 새출발!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실현하는 불교정론지 '현대불교'가 새 얼굴로 새 출발합니다. 올해로 창간 14주년을 맞은 '현대불교'는 회사의 얼굴인 CI를 새롭게 정하고 지면도 일부 개편했습니다. 보다 유익하고 감동적인 기사, 보다 비주얼한 지면으로 변신한 '현대불교'를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의 새로운 'CI' 탄생

지혜와 자비 구현하는 현대불교 이미지 담아

두 팔을 높이 올린 기원은 불자의 이미지 속에 지혜의 촛불이 밝게 타오르는 모습은 지혜와 자비의 구현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된 두 선은 중증무진의 인드라마를 연상시키며 그래픽으로 처리된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결합은 선과 악, 삶과 죽음 등 대립을 원용시키는 '돌이 아닌 도리'를 나타냅니다. 또 전체적인 형상이 연꽃잎을 상징하는 것은 오락가락에 물들지 않으며 정론과 정범으로 법을 전하는 매체의 사명을 드러낸 것입니다.

흥미롭게 읽고 감동으로 신행 UP!

신설 지면 · 새 연재 안내

충청 지역면 신설 ▶12면
충청지역의 불교를 넓고 깊게 다룬 '충청 지역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또 종합면을 1면부터 4면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사를 담았습니다. 이로써 '현대불교'는 부산경남(10면), 호남(11면), 충청 지역 등 3개의 지역 전용 지면을 갖춰 전국적인 불교네트워크를 형성 했습니다.

출판세계 ▶20면
경전의 비유를 만화로 재구성해 흥미와 감동으로 신행을 업그레이드시켜 드리는 김홍인 화백의 '울릉보살 불등기사'가 새로 선보입니다. 우리 민족 인쇄문화의 자부심을 견인해 온 불교 판화의 세계도 '옛 판화 이야기'를 통해 찾아 갑니다. 옛 판화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치악산 명주사교판화박물관 신학 스님이 들려줍니다. 1면에 연재되던 '허허담의 세상만사'도 20면으로 옮겨 매주 실립니다.

청오스님의 청다함 이야기 ▶18면
청오 스님이 전통 기법을 전수받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해 낸 '청다함', 그 신비의 향을 법당으로 옮겨 놓기까지의 고된 시련과 성취의 기쁨, 오롯한 수행이었던 향 개발의 과정을 청오 스님이 진솔하게 들려줍니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부다, 이세상에나투신 이유?
교파마 부다
[성열지음 | 도서출판 문화교과 | ₩22,000원]

관불수향
불가 최초 관불 관육 전용
전단향이 그윽한 향탕수로 관불 관육시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향 · 조각 · 공양물 02)3663-6777

세계평화 남북통일 기원
법왕사 제18회 백고좌대법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일시: 2008년 6월 18일(수) ~ 9월 30일(화) 100일간 매일 오전 9시(108배 3번) 매일 오전 11시(법문) · 장소: 법왕사 큰법당 · 증명: 조계종 원로의원 원공정무

법왕사에서 세계평화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18회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백분의 큰스님을 모셔다 100일동안 설법하는 법회로 법왕사에서는 창건 이래 18여년동안 열일곱 차례의 백고좌법회를 열었는데 매년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법회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법회는 불교의 핵심인 경율론 삼장을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를 택하여 오는 **6월 18일(수)부터 9월 30일(화)까지 100일동안 법랍 30년 이상의 스님 1백분**을 모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법문을 하게 됩니다. 세계평화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발원을 담아 뜻깊은 법석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백고좌백중 영가천도재 49일 함께 봉행함(접수요망)

1일차_ 6월 18일 고우스님(조계종원로의원)	12일차_ 6월 29일 해월스님(동화사/비로암)	23일차_ 7월 10일 효탄스님(운문승가대강사)	36일차_ 7월 23일 원운스님(법주사강주)	59일차_ 8월 15일 백중 실상스님(법왕사강주)
2일차_ 6월 19일 압도스님(백양사/경광원주지)	13일차_ 6월 30일 각현스님(연꽃마을대외이사)	24일차_ 7월 11일 현강스님(보성/대원사주지)	38일차_ 7월 25일 교원스님(부산/감로정사주지)	62일차_ 8월 18일 경원스님(극락사주지)
3일차_ 6월 20일 지안스님(해사승가대학원장)	14일차_ 7월 1일 성타스님(경주/불국사주지)	25일차_ 7월 12일 학담스님(조계종총의원)	37일차_ 7월 24일 운원스님(동국대강사)	64일차_ 8월 20일 진원스님(동국대교수)
4일차_ 6월 21일 자광스님(관오사불교사회복지회주)	15일차_ 7월 2일 보각스님(중앙승가대학교)	26일차_ 7월 13일 범공스님(동국대학교)	39일차_ 7월 26일 경성스님(중앙승가대학교)	70일차_ 8월 26일 지현스님(승광사원장)
5일차_ 6월 22일 각성스님(부산/회암사주지)	16일차_ 7월 3일 성열스님(서울/장남포교원장)	27일차_ 7월 14일 영안스님(진주/해포사주지)	40일차_ 7월 28일 법인스님(논산/안심정사주지)	73일차_ 8월 29일 지환스님(동화사기본선원장)
6일차_ 6월 23일 현웅스님(서울/육조사선원장)	17일차_ 7월 4일 종석스님(중앙승가대학교)	28일차_ 7월 15일 범철스님(밀양/서산사주지)	42일차_ 7월 29일 일강스님(운문승가대학강)	75일차_ 8월 31일 지오스님(연어사승가대학 강주)
7일차_ 6월 24일 무진강스님(동산불교대학장)	18일차_ 7월 5일 도오스님(동국대학교)	29일차_ 7월 16일 종연스님(인천/수미정사주지)	43일차_ 7월 30일 혜경정사(진각종 포교원장)	76일차_ 9월 1일 도진스님(격지사 중앙)
8일차_ 6월 25일 무심스님(대전/무상사주지)	19일차_ 7월 6일 현각스님(원주/성불원장)	30일차_ 7월 17일 운원스님(여래원원장)	45일차_ 7월 1일 혜충스님(조계종 포교원장)	78일차_ 9월 3일 진철스님(만북선원)
9일차_ 6월 26일 환안스님(한국불교통신대학장)	20일차_ 7월 7일 상인스님(군위/인각사주지)	31일차_ 7월 18일 불심도문스님(죽림정사조신)	46일차_ 8월 2일 지복스님(장흥/보림사주지)	80일차_ 9월 5일 일진스님(운문승가대학강)
10일차_ 6월 27일 주경스님(강릉/성원사주지)	21일차_ 7월 8일 현진스님(여의도포교원장)	32일차_ 7월 19일 정각스님(만의사주지)	49일차_ 8월 5일 정업스님(군포/정각사주지)	87일차_ 9월 17일 정무스님(조계종원로의원)
11일차_ 6월 28일 인환스님(서울/경국사주지)	22일차_ 7월 9일 혜경스님(화담정사조신)	35일차_ 7월 22일 해운스님(해인정사주지)	54일차_ 8월 10일 현호스님(안양/지장선원주지)	100일차_ 9월 30일 종진스님(해인사주지)

1일차_ 6월 18일 입재 법문 **고우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100일차_ 9월 30일 보살계 불명수지 법회봉행 **종진스님** 해인사 율주

제18회 백고좌대법회 전야제 **삼사음악회** · 일시: 2008년 6월 17일 오후 7시 · 장소: 법왕사 큰법당 앞 광장 · 출연진: 유진박, 범승님, 이상스님, 허형영(인도성악가), 연합합창단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116번지 ☎ 053)766-3747 www.budwangsa.or.kr ※ 동참신청단체는 미리 연락 바랍니다.